

성별 특성 단어의 자동적 평가효과*: 일치성 효과와 긍정성 우위 효과를 중심으로

Automatic Evaluation Effect of Gender Preference Words : Focused on the Congruency Effect and Positivity Priming Effect

오 경 기** 김 미 라*** 이 재 호**** 조 금 호*****
(Kyung-Kee Oh) (Mi-Ra Kim) (Jae-Ho Lee) (Geung-Ho Cho)

요약 본 연구는 남녀 성별 성격 특성단어에 대한 정서판단시에 개입되는 자동적 평가효과를 점화과제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점화조건과 목표조건에 따라 성격 특성단어들을 네 가지로 조합하였으며 두 가지 유형의 SOA에서 점화단어와 목표단어에 대한 일치성 효과와 긍정성 우위 효과를 살펴보았다. 실험1의 짧은 SOA(150-250ms)에서는 긍정-긍정 단어쌍이 부정-부정 단어쌍보다 반응시간이 빠르게 나타났다. 실험 2의 긴 SOA(500-1000ms)에서는 단어쌍 조건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짧은 SOA에서는 긍정성 우위 효과가 나타났지만, SOA가 길어짐에 따라서 일치성 효과나 긍정성 우위 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인지적 대상에 대한 자동평가가 일반 인지체계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자동적 의미처리과정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편견이나 고정관념처럼 정서가 내포된 사회적 정보는 정서의 긍정성이나 부정성에 따라서 다른 처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주제어 성별 선호도, 자동적 처리, 일치성 효과, 긍정성 우위 효과, 명명과제

Abstrac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whether an automatic evaluation effect (i.e., congruency effect and positive priming effect) of emotional properties which have been found in the racial prejudice study can be applied to the gender properties. Experiment 1 employing a short SOA (150ms-250ms) naming task showed a priming effect was larger in the positive prime-positive target condition than negative prime-negative target condition but not congruent effect. Experiment 2 employing a long SOA (500ms-1000ms) naming task didn't yield either positive priming effect or congruency effect. The congruency effect and the positive priming effect which is ubiquitous phenomenon in the generic cognitive concepts network were not found in the gender properties.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the social information including prejudice or stereotype can be differently processed according to the value of emotionality.

Key words Gender preference, Automatic processing, Congruency effect, Positivity priming effect, Naming task

*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협동과제지원(KRF-1999-042-C00221)과 2002년도 과학기술부의 뇌신경정보사업의 일부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실험 프로그램을 제작한 이견호 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세밀한 비평과 제안을 해주신 두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kkeeoh@korea.ac.kr)
***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교신처) : psymira@chollian.net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leejh@cau.ac.kr)
*****서강대학교 교양과정부 (ghcho@sogang.ac.kr)

사회인지(social cognition)연구는 인간을 사회적 정보의 지각자로 가정하며 일반 대상(object)개념에 관한 정보표상과 처리체계의 설명틀을 토대로 사회적 개념의 정보처리 기제를 설명하고 있다(Cantor & Mischel, 1979; Kunda, 2000; McGarty, 1999). 사회인지의 대표적 주제로는 고정관념(stereotype)이나 편견(prejudice)에 내재된 자동적 정보처리의 특성이나 이러한 사회적 개념의 암묵적 표상형성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일반 대상개념에 비해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같은 사회적 개념의 정보처리는 상대적으로 더 복잡적이고 모호한 특징이 있다(Kunda, 2000; McGarty, 1999).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지처리용량의 한계 때문에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는 대상개념은 가능한한 기존의 한정된 정보를 이용하여 단순화시켜 처리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즉 특정 대상이나 사상(event)이 갖는 개별 특성보다는 그 대상이 속해있는 범주정보에 주의를 쏟는다. 마찬가지로 고정관념이나 편견같은 사회적 정보도 사회적 대상의 고유한 개별 특성보다는 그 대상이 속해있는 특정 집단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속성위주로 처리된다.

Macrae, Stangor, 및 Milne(1994)는 우발적 과제를 사용하여 고정관념의 점화현상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고정관념을 점화시킨 후 고정관념과 일치된 성격특성을 제시한 경우가 불일치한 성격특성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반응을 하였으며 이러한 고정관념의 처리는 의도적인 인지 처리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관념의 처리는 활성화 확산모형(spreading activation model)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의사'란 단어를 제시하면 '의사'와 의미적으로 밀접한 '간호사'나 '병원'단어는 쉽게 회상되지만 '뽕'이라는 단어는 쉽게 회상되지 않는다. 반면 '버터'단어를 제시하면 '뽕'단어가 쉽게 떠오르지만 '간호사'단어는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제시한 단어와 의미적으로 강하게 연합된 단어들은 약하게 연합된 단어들에 비해 인출(retrieval)이 쉽고 빨라진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사에 관한 지식이 독립적이기보다는 연관성에 의해 조직화되어 저장되어있음을 의미한다. 특정 지식개념이 내외적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면 그 활성화는 조직화된 의미망을 따라서 확산된다. 즉 '의사'단어에 대한 '간호사'단어의 신속한 인출은 상호연결된 의미망을 통한 활성화 확산현상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의미점화효과 모형에 따르면, 특정 단어의 처리양상은 그 단어와 의미적으로 관련된 단어가 앞서 제시될 때와 제시되지 않을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점화"는 시간적으로 앞서 제시한 사상(점화어)이 뒷사상(목표어)의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인지일반의 연구는 점화어와 목표어간의 인지적 관계성을 통해서 점화효과를 추정하는 연구가 주류이지만 사회 인지분야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나타내는 점화효과 즉, 고정관념과 편견의 활성화 촉진 및 억제 효과기제등이 주된 연구의 흐름을 이루고있다(Neely, 1977; Neely, Schmidt, & Roediger, 1983).

암묵기억과 외현기억 체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면서 두 기억체계를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으며 점화과제의 정보처리는 자동적 처리가 주된 요소임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인지정보처리 유형은 외현 기억과 제처럼 의식적 자각아래에서 수행되는 통제적 처리(controlled processing)와 의식적 자각이 낮고 암묵적 기억과제에 개입되는 자동적 처리(automatic processing)로 구분한다. 그런데 두 유형의 정보처리중 시간적으로 불수의적인 자동적 처리가 먼저 일어나고 수의적인 통제적 처리가 수반된다. 따라서 자동적 처리는 통제적 처리에 비해서 처리속도가 빠르면서 인지자원도 적게 소모된다. 많은 인지자원을 필요로 하는 통제적 처리는 여러 가지 과제에서 사용할 인지자원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점화효과가 사라지거나 반전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Isen, 1987). Neely(1977)는 성별 고정관념과 인종편견의 연구에서 자동적 처리와 통제적 처리를 시간차원에서 구분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점화어를 제시한 후 목표어에 대한 판단을 하게 했을 때 짧은 SOA¹⁾에서는 자동적 처리효과가 나타났지만, 500ms를 넘어선 긴 SOA에서는 자동적 처리효과는 보이지 않고 통제적 처리가 개입했다. 이 연구 이후에 SOA 500ms는 점화과제연구에서 자동적 처리와 통제적 처리를 구분하는 시간분기점의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지각자의 지식 신념체계 및 기대를 포괄하는 인지구조로 정의하고 있다(Kunda, 2000). 이 인지구조는 지각자가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 대해서 갖는 범주지식체계이며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자동적 처리와 통제적 처리가 모두 개입된다.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초기단계에서 짧은 시간에 발생하며 일단 시작된 고정관념과 관련된 개념으로의 활성화는 의도적인 개입에 의해서도 중단되지 않는다. 뒤이어 나타나는 통제적 처리에서는 의식이 개입되며 여러가지 환경제약 등을 고려하여 판단과 평가 및 행동수행등이 이루어진다. 암묵연상과제 (IAT:

1) SOA(Stimulus Onset Asynchrony)는 점화 자극이 제시되는 시점에서부터 목표 자극이 제시되는 시점사이의 시간이다. 즉 점화 자극이 제시된 시간과 점화 자극이 사라지고 목표 자극이 제시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포함한다.

Implicit Association Test)를 이용한 고정관념 활성화의 자동처리에 관한 연구에서는 점화어와 목표어가 둘 다 백인 관련 단어인 경우가 점화어는 백인관련 단어이고 목표어는 흑인관련 단어인 경우에 비해 반응시간이 빨랐다(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고정관념의 인지적 처리과정에 관한 Greenwald 등(1998)의 연구는 점화단어와 목표단어가 동일집단을 기술하는 경우의 점화효과가 점화단어와 목표단어가 같지 않은 내외집단을 기술하는 경우의 점화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결과는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사회적 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Cohen, 1981; Greenwald, Draine, & Abrams, 1996; Klauer, Rosnagel, & Musch, 1997; Kunda, 2000).

Banaji와 Greenwald(1995)의 정서적 평가방법을 이용한 편견연구에 의하면, 긍정 점화단어와 백인관련 목표단어간의 점화효과가 긍정 점화단어와 흑인관련 목표단어에서의 점화효과보다 크게 나타났고, 부정점화단어와 흑인관련 목표단어를 연합하여 제시한 경우가 부정 점화단어와 백인관련 목표단어를 연합하여 제시한 경우보다 점화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이른바 전형적인 자동평가효과(automatic evaluation effect)를 보여주었다. 즉 점화어와 목표어간 정서적 평가차원이 일치할 때가 불일치할 때보다 더 큰 점화효과를 보여주었다. 편견에 따른 정서의 영향을 보여주는 자동편견효과(automatic prejudice effect)에 의하면, 편견을 갖는 평가자한테 긍정적 특성단어를 점화어로 제시하고 평가자가 속한 내 집단(intra-group) 특성단어를 목표어로 제시한 경우가 부정적 점화어와 내 집단 특성단어를 목표어를 제시한 경우나, 정적인 점화어를 주고 외집단(inter-group)의 특성단어를 목표어로 제시한 경우에 비해 명명반응시간이 빠르게 나타났다. 자동평가효과가 특정 편견유목과 관련된 특성단어를 목표어로 사용할 때도 나타난다면 즉, 자동편견효과가 나타난다면 이 때의 반응시간의 차이는 특정 유목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Banaji & Greenwald, 1995).

점화어와 목표어간 정서가 일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빠른 명명반응시간을 보이는 일치성 효과(congruency effect)의 경우는 정보에 포함된 정서의 평가내용이 직접적으로 정보처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량의 인지 처리용량만으로도 충분히 자동적 처리를 유도하게 된다. 성별 고정관념과 인종 편견에 관한 수 많은 사회인지연구는 Neely의 자동적 처리와 통제적 처리의 구분에 토대를 두고있다(Neely, Schmidt, & Roediger, 1983). 사회적 지식의 평가과정(evaluative

processing)의 자동성에 대해서도 유사한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다. Fazio, Sanbonmatsu, Powell, 및 Kardes (1986)는 평가적 형용사 단어를 실험참가자에게 먼저 제시하고 300ms 후에 두 번째 단어를 제시한 후 단어의 긍정성 혹은 부정성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가 평가적으로 일치하는 조건(긍정단어-긍정단어)이 일치하지 않는 조건(긍정단어-부정단어)에 비해 판단시간이 빨랐다.

Bargh, Chaiken, Raymond, 및 Hymes(1996)는 형용사 평가과제에서 자동적 효과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형용사의 제시시간과 과제를 다양하게 변화시켰다. 단어쌍 간 제시시간을 250ms로 통제하고 명명과제를 실시할 때 두 가지 실험조건을 통제하였음에도 평가과정의 자동적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를 평가의 "일치성 효과"로 명명하였다(Bargh, Chaiken, Raymond, & Hymes, 1996; Fazio, Sanbonmatsu, Powell, & Kardes, 1986; Greenwald, et al., 1996). Bargh 등(1996)은 자동적 평가는 평가적 태도의 연합강도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주었고, Greenwald 등(1996)은 점화단어를 충분한 주의를 쏟을 수 없는 역치이하(subliminal)의 시간동안에 제시했을 때도 일치성 효과를 보여주었다. 자동적 평가의 일치성 효과에 관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일반 대상을 토대로 한 자동적 의미점화효과가 사회적 인지개념의 평가점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과 사회적 인지개념에서는 정서적 혹은 평가적 차원이 정보를 표상할 때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해 주었다.

Glaser와 Banaji(1999)는 자동적 평가 효과를 점화어의 속성에 따라 일치성 효과와 역점화 효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점화어로는 음식과 관련된 단어와 일반 단어가 사용되었다. 음식이름이 점화어로 인종단어(예, '흑인'과 '백인')가 목표어로 제시된 경우에는 평가의 일치성 효과를 보였지만, 일반 단어를 점화어로 인종 단어를 목표단어로 제시했을 때 명명시간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부정적인 일반 단어를 점화어로 부정적 흑인 단어를 목표어로 제시한 조건이 긍정적 일반 단어를 점화로 제시한 경우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느리게 나타났다. 즉 정서적 평가가 일치하는 조건('긍정-긍정' 혹은 '부정-부정')이 불일치조건('긍정-부정' 혹은 '부정-긍정')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느려지는 역점화 효과(reverse priming effects)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점화 효과는 의미적 연관이 강할수록 그 효과가 증대되는데 비해서 오히려 이 연구에서는 반응이 느려진 것이다. Glaser와 Banaji(1999)는 이러한 역점화 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점화 자극을 극단 평가 자극(긍정단어 :

blossom, hug, love, triumph, 부정단어 : abuse, anger, grief, poison:)과 보통 평가자극(긍정단어 : butterfly, history, salute, window, 부정단어 : army, chair, fire, rust)으로 구분하여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보통 자극에서는 일치성 효과가 극단 자극에서는 역점화 효과가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자극 쌍의 의미적 연합의 강도에 따라서 점화효과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의미점화의 측면에서는 일반 부정단어(incident, death, stress, virus)와 흑인 부정단어(crack, jail, slum, rap)는 부정적 정서가 일치하기 때문에 촉진적 점화 효과, 즉 부정-부정 자극 쌍이 부정-긍정 자극 쌍보다 반응이 빨라야 한다. 그러나 Glaser와 Banaji(1999)의 연구에서는 부정 단어나 긍정 단어 모두에서 억제적 점화가 나타났다. 이는 역점화 효과는 긍정과 부정의 극단성 정도가 평가점화에 동일하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차별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점화효과에서 관찰되는 또 다른 현상으로서 점화어와 목표어가 모두 긍정적 정서일 때가 부정적 정서일 때보다 더 큰 점화효과를 보이는 긍정성 효과(positivity effect)가 있다(De Houwer, Hermans, & Spruyt, 2001; Klauer, et al., 1997; 이재호, 오경기, 김미라 및 조공호, 2001). 이 효과는 정서의 종류에 따라서 관여하는 정보 처리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그 효과가 상호 비대칭적인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컨대 인상형성, 설득, 판단 및 평가 등을 다룬 인지과제들을 사용한 실험들에 의하면, 정적 정서는 기존의 일반 지식구조에 의해서 처리되지만 세부 사항까지는 정보처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부적 정서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처리가 주를 이루고 세부 정보까지도 처리된다.

Klauer 등(1997)은 성격 특질(traits)을 사용하여 일치성 효과를 살펴보았다. 성격 특질을 일치조건(예, '긍정-긍정' 혹은 '부정-부정')과 불일치조건(예, '긍정-부정' 혹은 '부정-긍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하여 목표 단어가 긍정 혹은 부정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SOA 0-100ms에서는 일치성 효과가 나타났지만 SOA 100ms조건과 200-1200ms에서는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간 반응시간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더불어 일치성 효과에 배치되는 결과로서 긍정-긍정 조건이 부정-부정 조건에 비해서 평가의 판단이 빠르게 나타나는 긍정성 우위 효과를 보였다. 점화어와 목표어의 긍정-부정 일치성 효과여부를 검증한 이재호 등(2001)의 성별 선호도의 점화효과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긍정-긍정 조건이 부정-부정 조건에 비해서

더 큰 점화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SOA 250-500ms에서 점화단어보다는 목표단어의 긍정성이 명명시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Rudman, Greenwald, 및 McGhee(2001)의 IAT과제를 사용하여 성별 고정관념에 내재된 자동적 평가의 암묵적 처리과정 연구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warmth'에 강한 연합을 보였지만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power'에 강한 연합을 보였다(Rudman, Greenwald, & McGhee, 2001). 그러나 두 성의 참가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암묵적 측면에서는 자신을 바람직한 특질로 연합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바람직한 특질은 부정적 특질보다는 긍정적 특질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 긍정-긍정의 단어쌍이 부정-부정의 단어쌍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 성별 고정관념의 부정적 특질보다는 긍정적 특질을 더 선호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연구문제

인간사회에는 정서적 차원이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다양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인종편견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발표되었고 자동평가 효과와 일치성 효과를 비교적 상황에 안정적인 특성으로 보고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만연되는 편견중의 하나로 성편견을 들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입각한 성 역할 자체는 중립적인 정보가 집합된 개념체계이지만 이러한 중립적 사회역할에 왜곡된 가치관과 판단이 가미되면서 특정 성 역할은 다른 성 역할보다도 가치가 높다(혹은 낮다)는 식의 역할에 대한 서열화라는 평가가 이루어진다. 인지적 평가와 더불어 '좋다' 대 '나쁘다' 혹은 '선호' 대 '비선호'등의 정서적 평가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여성이 담당하는 역할은 남성이 담당하는 역할에 비하여 그 가치와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고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적 편견이 생겨나기도 한다(김혜숙, 1999).

본 연구에서는 서구의 인종편견 연구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정서적 정보의 일치성 및 긍정성 우위효과가 우리의 남성과 여성에 관련된 성격 특성단어의 정보처리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의 고정관념과 편견의 자동적 평가에 관한 연구는 초기의 연구(Bargh, Chaiken, Raymond, & Hymes, 1996; Fazio, et al., 1986)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평가 극단치의 역점화 효과(Glaser, & Banaji, 1999)나 평가의 긍정성 우위 효과(이재호 등, 2001; De Houwer, Hermans, &

Spruyt, 2001 ; Klauer, et al.)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평가과정이 인지 일반의 의미적 점화과정과는 다른 제약이 작용한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

의미적 점화효과가 평가적 과정의 점화효과에도 적용된다면(Blair & Banaji, 1996), 점화-목표 자극의 평가가 일치하는 모든 상황에서 일치성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역점화 효과에 따르면 점화-목표 자극의 평가의 극단성은 오히려 평가 반응을 느리게 한다는 증거나, 긍정성 우위효과에서는 긍정-긍정 쌍이 부정-부정 쌍에 비해서 평가 반응이 빠르다는 증거로 인해서 점화어-목표어간 정서가에 대한 일치성 효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치성 효과는 평가의 강도와 평가의 유형, 사용된 과제 및 고정관념 유형 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밖에 없다.

성별 고정관념의 범주적 표상특성에 관한 이재호 등(2001)의 점화단어의 성별과 목표단어의 성별이 목표단어 명명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논한 연구는 점화단어로 남성단어보다는 여성단어이면서 그리고 목표단어로 남성단어보다는 여성단어인 경우가 명명반응 시간이 빨랐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나타나는 평가의 일치성 가설에 따르면 성별이 일치하는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Bargh, et al., 1996; Fazio, et al., 1986). 그러나 이재호 등(2001)의 실험에서는 점화-목표 조건간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여성 일치성 효과, 즉, 여성-여성 조건이 교차조건(여성-남성, 남성-여성)과 남성-남성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lauer 등의 성격특질에 대한 긍정성 우위 효과와 비교될 수 있다(Klauer, Rossnagel, & Musch, 1997; 이재호 등, 2001). 이렇듯 성별 선호도와 성격특질의 점화효과에서 일관된 현상은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에 비해서 더 강한 점화효과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평가의 일치성 효과의 예측과는 다른 것이다. 평가의 일치성 효과를 검증한 연구 결과에서 긍정-긍정 자극쌍이 부정-부정 자극쌍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과 비슷하게 이재호 등(2001)의 성별 전형성 연구도 여성 범주의 속성이 남성 범주의 속성에 비해서 더 큰 점화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성별 고정관념의 범주 표상이 인지적 속성과 평가적 속성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여성과 남성 범주가 배타적이고 대등한 범주로 표상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결과이다.

이재호(2001)의 연구에서처럼 남성과 여성범주 정보가 명확하게 분화되지 않고 오히려 여성범주 속성이 점

화판단을 주도한다면 남성과 여성의 성격 특성단어를 선호도차원에서 구분하여 긍정성 단어와 부정성 단어를 점화어와 목표어로 사용한 본 연구도 인종단어를 사용한 서구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일치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편견이 배제된 중성(neutral) 특성단어에서는 정적 점화단어는 정적 목표단어를 점화할 것이고 부적 점화단어는 부적 목표단어를 점화할 것이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평가적 속성과 관련된 단어속에 긍정적 단어와 부정적 단어가 혼재되어 있다면 자동평가의 일치성 효과가 단순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적인 정서와 부적인 정서가 서로 다른 의미적 연결을 지닌 채 다른 유형의 정보처리를 요한다면 남성과 여성의 평가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단어군이라 할지라도 정적 단어쌍(정적 점화단어-정적 목표단어)이 부적 단어쌍(부적 점화단어-정적 목표단어)보다 더 빠른 판단을 보여주는 긍정성 우위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일치성 효과를 자동적 처리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행연구대로 SOA 500ms가 자동적 처리 효과를 판단하는 시간분기점이라면 이 분기점에 따라서 본 연구의 남성여성의 성격 특성에 관한 긍정적 단어와 부정적 단어간 점화패러다임의 일치성 점화효과와 긍정 단어쌍의 우위효과도 그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는 점화-목표 자극쌍의 SOA를 변화시켜서 시간차원에 따른 점화유형의 일치성효과와 긍정 단어쌍의 우위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실험을 각각 실시하였다. 실험 1의 짧은 SOA에서는 150ms, 250ms로, 실험 2의 긴 SOA에서는 500ms, 1000ms로 각각 구분하였다. 자동적 처리과정효과가 나타나는 시간간격을 전통적으로 150msec부터 300ms사이로 간주하기 때문에(Neely, 1977) 시간에 따른 점화효과와 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SOA를 변화시켰다. 긍정성 우위효과를 보기 위하여 남녀 성격 특성에 관련된 선호도 단어군에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추출하여 점화단어와 목표단어로 각각 사용하였다.

실험 1: 짧은 SOA

실험 1은 남성과 여성에 관련된 성격 특성단어에 대한 자동 점화효과와 일치성 효과와 긍정성 우위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점화어-목표어 쌍 형태의 점화과제에서 자동적 처리를 반영하는 시간분기점을 SOA 150ms~300ms로 간주하고 있다(Glaser & Banaji, 1999; Klauer, Rossnagel, & Mush, 1997). 점화단어와 목표단어간 정서가에 대한 평가내용이 일치할

때, 즉, 긍정-긍정과 부정-부정쌍 조건이 나머지 불일치조건보다 목표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이 빨라지는 일치성 효과와 긍정-긍정조건이 부정-부정조건보다 더 빠른 반응을 보이는 긍정성 우위 효과는 짧은 SOA(150-300ms)를 채택한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왔다 (Greenwald & Banaji, 1995). 이처럼 짧은 SOA에서는 점화단어에 대한 충분한 의미파악과 정서가에 대한 통제적, 의도적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곧바로 다음에 제시되는 목표단어에 대한 처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실험 1은 SOA 150ms와 250ms조건으로 양분하여 점화단어에 대한 판단자의 의도적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명과제를 사용하였다. Fazio 등(1986)의 인종편견에 관한 일치성 효과과설에 의하면 점화-목표 단어쌍이 일치하는 조건('긍정-긍정', '부정-부정')이 불일치조건('긍정-부정', '부정-긍정')에 비해서 목표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이 빠른 점화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또한, 점화-목표 조건단어 쌍간 긍정성 우위효과에 의하면, 긍정-긍정 조건이 부정-부정조건보다 판단반응시간이 빨라야 한다. 이 실험은 SOA시간별 네 가지 점화-목표 조건에서 따른 성 특성단어에 대한 명명반응시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참가자 : 중앙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재학생으로 99명(남자: 48, 여자: 51명)이 참가하였다. SOA 150ms집단에 50명, 250ms집단에 49명을 각각 무선 할당하였다.

실험설계 : 독립변인은 점화조건(긍정 특성, 부정 특성), 목표조건(긍정 특성, 부정 특성)을 조합한 긍정-긍정, 긍정-부정, 부정-긍정, 부정-부정조건으로 피험자 내 변인이었으며, 다른 한 변인은 SOA 수준(150ms, 250ms)의 피험자간 변인으로 한 혼합요인설계를 적용하였다.

실험재료 : 본 실험에서 사용할 실험재료는 사전조사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사전조사는 남성과 여성의 성격 특성단어를 조사한 후 각 특성 단어의 선호도 지수를 산출하여 본 실험에서 사용할 점화단어와 목표단어의 실험 재료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의 제 1단계에서는 남성과 여성하면 신속하게 연상시키는 성격 특성을 대학생들로 하여금 5분 동안에 떠오르는 순서대로 기술하게 하여 각 특성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심리학수업을 수강하는 500명의 참가하였으며 개방형 설문지를 제시한 후 남성과 여성에 연관된 내외적 특성을 명사, 형용사 및 동사형태로 제한된 시간동안 기술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성격 특성의 빈도에 따라 120개의 단어를 선정하였다(부록 1 참조). 이를 토대로 제 2단계에서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선정된 각 성격 특성단어에 대한 선호도(preference : 부정성 혹은 긍정성의 정도)를 7점 척도상에서 평정하는 평정과제를 실시하였다. 120개의 특성단어에 대한 선호도지수의 산출을 위해서 3개 대학교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120개 단어를 무선적으로 배열하여 각 단어의 부정성(negativeness) - 긍정성(positiveness)의 정도를 7점 척도(1: 매우 부정적 특성이다. 7: 매우 긍정적 특성이다)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단어의 선호도 평정치의 평균을 토대로 긍정성-부정성의 뚜렷한 분화를 보이지 않은 중간 선호도의 단어를 제외한 상위의 긍정 특성단어 28개와 하위의 부정 특성단어 28개, 총 56개를 실험재료로 최종 선정하였다(부록 2 참조). 긍정과 부정 특성 56개는 선호도 분포가 동질적이라도 7개씩 4개의 하위목록으로 각각 구성하여 4가지 실험제시조건(긍정-긍정, 긍정-부정, 부정-긍정, 부정-부정)에 할당하여 실험조건에 따른 실험재료의 편향효과를 방지하였다. 긍정특성의 4개 하위목록의 선호도 평균은 5.95, 부정특성은 2.48였으며 4개의 하위 목록들은 통계적으로 모두 동질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각 단어는 실험조건에 근거하여 네 가지 유형의 점화-목표 단어쌍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단어쌍은 [긍정(능력있다)-긍정(성실하다)], [긍정(아름답다)-부정(독선적이다)], [부정(이기적이다)-긍정(멋있다)], [부정(잔인하다)-부정(무식하다)]이었으며, 각 조건에는 7개씩의 점화-목표 단어쌍을 할당하여 같은 단어가 점화와 목표조건에 각각 한번씩 제시되도록 하였다. 본 시행에 앞서 연습시행에서는 본 시행에 사용된 단어와 의미적으로 관련이 낮은 형용사쌍 5개를 무선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절차 : 실험순서는 5회의 연습시행과 28회의 본 시행으로 구성되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실시하였다. 실험 지시문이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면 참가자가 스스로 키보드를 사용하여 이해하도록 하였다. 실험 절차는 컴퓨터 모니터중앙에 눈고정 '*****' 표시가 500ms동안 제시되었고, 그 표시가 사라지면 점화단어가 50ms동안 제시되었다. 점화단어가 제시된 후 100ms가 경과된 다음 목표단어가 제시되었다. 자극 제시를 비롯한 전체 실험절차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실험자는 실험참가자에게 점화단어가 제시되면 그 단어의 제시 여부만 확인하게 하였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점화단어 이후에 목표단어가 제시되면 참가자는 정면의 마이크에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단어를 소리내어 발음하였

다. 마이크에 발생된 신호는 사운드 카드를 통해서 컴퓨터로 입력되었다. 명명반응시간은 목표단어가 화면에 제시된 시점부터 참가자가 단어를 발음하기 시점까지 시간이었으며, 이 반응시간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료파일 형태로 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 후, 다음 시행이 같은 절차로 반복 진행되었으며, 시행간 시간 간격은 1000ms였으며, 본 시행이 실시되기 전에 실험 절차에 대한 이해와 명명반응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10 번의 연습시행을 실시하였다. 연습시행에서 사용된 단어는 본 시행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였으며 본 시행의 실험절차는 연습시행과 동일하였다. SOA 150ms 집단의 경우에는 점화단어를 50ms동안 제시하고 100ms 지연시간 후에 목표단어를 제시하였고 SOA 250ms 집단은 점화단어를 150ms제시하고 100ms지연 후에 목표단어를 제시하였다. 참가자는 모두 40개의 점화단어-목표 단어 자극쌍에 대해 반응을 하였으며 실험시간은 약 15 분이였다.

결과 및 논의

명명과제에서 목표단어 명명유류는 거의 없었다. 반응 시간 중 SOA 150ms에서 표준편차 ±3이상인 반응(385ms, 644ms)은 386ms와 643ms로(1%), SOA 250ms에서 반응은(371ms, 648ms)은 372ms와 647ms(0.9%)로 각각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1의 SOA별 점화-목표 조건간 목표단어의 명명반응시간의 평균을 <표1>에 제시하였다.

목표단어에 대한 명명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 점화-목표조건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3,291)=11.1$, $MSe=200.124$, $p=.001$). SOA별 효과는 150ms에 비해 250ms조건 반응시간이 전반적으로 빠른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네 가지 실험조건간 사후비교 검증결과, 긍정-긍정(505ms)이 긍정-부정(516ms)과 부정-부정(516ms)에 비해서 각각 빠른 반응시간을 보여주었다($F(1,97)=21.55$, $MSe=115.31$, $p=.01$; $F(1,97)=26.81$, $MSe=138.17$, $p=0.001$)).

SOA수준별 분석결과, SOA 150ms에서 실험 조건간 반응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3,147)=6.08$, $MSe=211.69$, $p=.001$). 긍정-긍정조건(507ms)이 긍정-부정(518ms)과 부정-부정(519ms)조건에 비해서 더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다($F(1,49)=12.76$, $MSe=388.04$, $p=.01$; $F(1,49)=17.31$, $MSe=319.40$, $p=.001$). 또한, SOA 250ms경우도 네 조건간 반응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144)=5.24$, $MSe=188.31$, $p=.01$). 긍정-긍정조건(504ms)이 긍정-부정(513ms)과 긍정-부정(513ms)조건에 비해서 더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다($F(1,48)=8.90$, $MSe=334.33$, $p=.01$; $F(1,48)=10.05$, $MSe=324.24$, $p=.01$).

긍정성 우위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긍정-긍정(505ms)이 부정-부정(516ms)에 비해 11ms의 더 빠른 반응을 보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98)=5.20$, $p=.001$). SOA수준별 분석결과도 긍정성 점화효과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SOA 150ms: $t(49)=4.16$, $p=.001$; SOA 250ms: $t(48)=3.17$, $p=.01$). 그러나, 점화-목표단어간 일치성 효과의 경우, 점화어와 목표어 모두가 일치하는 조건(긍정-긍정, 부정-부정)이 불일치조건(긍정-부정, 부정-긍정)에 비해 3ms정도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또한, 점화조건에서 긍정특성(510ms)이 부정특성(514ms)에 비해 더 빠른 반응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목표조건인 경우는 긍정특성(507ms)이 부정특성(516ms)에 비해 빠른 명명시간을 보였다($t(98)=6.05$, $p=.001$).

<표 1> SOA별 점화-목표 조건에 따른 목표 단어에 대한 평균 명명시간(ms)

SOA	점화-목표 조건				CE	PPE
	P-P	P-N	N-P	N-N		
150ms	507(42)	518(43)	512(42)	519(43)	-4	+12**
250ms	504(44)	513(45)	506(47)	513(46)	-2	+9**
평균	505(43)	516(44)	509(44)	516(45)	-3	+11**

* P-P(긍정점화-긍정목표), P-N(긍정점화-부정목표), N-P(부정점화-긍정목표), N-N(부정점화-부정목표), CE(일치성 효과 : Congruency Effect)=[((N-P)+(P-N))-((P-P)+(N-N))], PPE(긍정성 우위효과 : Positivity Priming Effect)=(N-N)-(P-P), ** $p < .01$, ()안은 표준편차

짧은 SOA 150ms와 250ms를 사용한 실험 1의 결과를 종합하면 서구의 인종 고정관념의 평가과정에서 나타났던 평가정보의 일치성 효과, 즉, 점화어와 목표어가 모두 긍정 특성단어이거나 부정 특성단어쌍이 그렇지 않은 단어쌍에 비해 더 빠른 명명반응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SOA간격과 독립적으로 긍정-긍정조건이 부정-부정조건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빠른 명명반응을 보였다. 본 실험에서 점화-목표 단어간 일치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서구사회의 인종편견 정보에 비해서 성별 성격 특성정보에 대한 선호도가 긍정과 부정의 양극단으로 완벽하게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인종편견과 성별 성격특성에 대한 정보의 표상체계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실험 2 : 긴 SOA

짧은 SOA를 이용한 실험1의 결과는 인종 편견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난 일치성 효과와 일관된 면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긍정-긍정 단어조건이 나머지 조건에 비해 SOA수준과 무관하게 더 빠른 반응시간을 보여주었다. 실험 2는 일치성 효과와 긍정성 우위효과가 의도적인 주의할당과 의식적인 통제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목표단어에 대한 판단시간을 증가시킬 경우에도 점화과제에서 자동적 처리현상이 나타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자동적 평가효과는 SOA 300ms를 분기점으로 사라진다는 선행연구에 입각하여 본 실험에서는 목표단어에 대한 처리시간을 기존 연구에서 채택했던 기준보다 더 긴 SOA 500ms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처리시간이 판단자의 의도적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면 일치성효과와 긍정성 우위효과는 약하거나 없어지고 대신에 다른 정보 특성에 입각한 판단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SOA를 500ms와 1000ms로 증가시켰다.

방 법

참가자: 중앙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82명(남자: 24명, 여자: 58명)이 참가하였으며 SOA 500ms집단에 36명, 1000ms집단에 46명을 각각 무선 할당하였다.

실험설계: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실험재료: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실험절차: 일반적 절차는 실험 1과 동일하였다. 단지 점화-목표 단어쌍의 SOA를 500ms와 1000ms로 증가시켰다. 500ms의 경우 점화단어를 200ms 제시하고, 300ms 지연 후에 목표단어를 제시하였으며 1000ms의 경우는 점화단어를 500ms 제시하고 500ms지연 후에 목표단어를 제시하였다. 이 SOA시간은 참가자가 점화단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판단자가 의도적으로 성별 특성에 대한 긍정성 혹은 부정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결과 및 논의

극단적인 반응시간은 SOA집단별로 교정하였다. SOA500ms집단에서는 표준편차±3이상인 반응(373ms, 678ms)은 374ms와 677ms로(1.1%)로 대체하였으며 SOA 1000ms집단의 극단적 반응(315ms, 724ms)은 316ms와 723ms로 각각 대체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반응들은 전체의 0.7%였다. 실험2의 SOA별 네 가지 점화-목표조건간에 따른 목표단어에 대한 명명반응시간의 평균을 <표 2>에 제시하였다.

목표단어에 대한 명명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 점화-목표조건간 주효과와 SOA의 수준별 주효과는 각각 통

<표 2> SOA별 점화-목표 조건에 따른 목표 단어에 대한 평균 명명시간(ms)

SOA	점화-목표 조건				CE	PPE
	P-P	P-N	N-P	N-N		
500ms	525(49)	530(53)	522(51)	528(49)	+1	+ 3
1000ms	516(68)	525(73)	516(62)	520(68)	-5	+ 4
평균	521(58)	528(63)	519(57)	524(57)	-2	+ 3

* P-P(긍정점화-긍정목표), P-N(긍정점화-부정목표), N-P(부정점화-긍정목표), N-N(부정점화-부정목표),
CE(일치성 효과 : Congruency Effect) = $\{[(N-P) + (P-N)] - [(P-P) + (N-N)]\}$,
PPE(긍정성 우위효과 : Positivity Priming Effect) = $(N-N) - (P-P)$, ()안은 표준편차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4개의 접화-복표조건간을 사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정-긍정조건(519ms)이 긍정-부정(528ms)과 부정-부정(524ms)조건에 비해서 더 빠른 반응경향성은 보였지만 유의미하지 않았다. 긍정성 우위효과와 긍정-긍정(521ms)이 부정-부정(524ms)에 비해 3ms의 더 빠른 반응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SOA수준별 분석결과에 의하면 긍정 우위효과와 경향만 보여주었다. 또한 SOA 1000ms 집단에서 긍정-긍정 조건이 부정-부정에 비해 4ms의 더 빠른 반응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접화-복표단어간 일치성 효과의 경우, 두 조건이 모두 일치하는 조건(긍정-긍정: 부정-부정)이 불일치조건(긍정-부정: 부정-긍정)에 비해 대체로 2ms정도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일치성 효과는 짧은 SOA를 채택한 실험 1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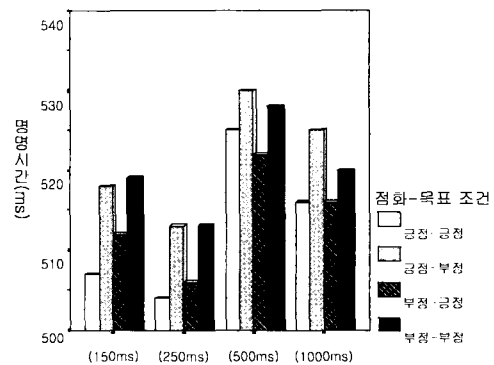
SOA 250ms이하의 조건에서 일어나는 복표어에 대한 자동적 처리와는 달리 긴 SOA를 채택한 실험 2의 결과는 접화어와 복표어에 대한 충분한 처리시간으로 인해 접화-복표어간 일치성 효과, 그리고 접화-복표어쌍이 모두 긍정 단어일 때가 모두 부정 단어일 때보다 더 빠른 반응시간을 보이는 긍정 우위효과도 사라짐을 보였다. SOA가 500ms이상인 경우에 판단자들은 제시되는 성격 특성단어에 대한 의식적 처리의 한 유형을 보여주었다. 특히, 접화어의 긍정 및 부정 특성과는 독립적으로 복표어에 제시된 단어가 긍정 성격 특성일 때가 부정 특성일 때보다 전반적으로 명명반응시간이 빠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짧은 SOA와는 다르게 제시된 단어에 대한 처리이용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판단자들이 접화단어보다는 복표단어의 특성에만 선택적으로 주의(selective attention)를 쏟은 의도적 처리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인종편견과 같은 사회적 인지정보의 일치성 효과(Banaji, et al., 1995, 1996)와 긍정적 정보의 우위 효과(Klauer, et al., 1997)의 기제가 남성과 여성의 성격 특성단어의 선호도를 이용한 접화과제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실시하였다. 접화단어와 복표단어간 일치성 효과에 의하면 긍정-긍정 조건과 부정-부정 조건이 긍정-부정 조건과 부정-긍정 조건에 비해서 명명시간이 빨라야 하고, 반면에 긍정성 우위 효과에 따르면 긍정-긍정 조건이 부정-부정 조건에 비해

서 명명시간이 빨라야 한다. 이들 효과가 자동적 인지처리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짧은 SOA에서만 관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자동적 암묵적 처리의 전통적인 시간기준점인 SOA 250ms를 토대로 짧은 SOA(실험 1)과 긴 SOA(실험 2)로 구분하여 자동적 접화효과를 살펴보았다(그림 1 참조). 짧은 SOA는 자동적 처리가 반영되는 시간으로 실험 1의 SOA 150-250ms에서는 일치성 효과는 경향성만 보이고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긍정성 우위효과는 명확히 관찰되었다. 즉 긍정-긍정 조건이 부정-부정 조건, 긍정-부정에 비해서 명명시간이 빨랐다. 이에 비해, 긴 SOA(실험 2 SOA 500-1000ms)에서는 일치성과 긍정성 효과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짧은 SOA에서 성별 성격특성에 대한 선호도의 긍정-부정 판단의 일치성 효과가 예상과는 다르게 관찰되지 않은 것은 남녀간 성격특성의 긍정과 부정성 정보가 병렬적으로 대등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긍정성 우위 효과가 관찰된 것은 긍정과 부정이 대등하기보다는 비대칭적인 체계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예: 이재호 등, 2001). 인종 편견연구(Glaser & Banaji, 1999)에서는 정서가가 극단적인 정보는 오히려 긍정이든 부정이든 반응시간이 역으로 느려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지만 일반 형용사의 경우에는 긍정-부정이 대등한 일치성 효과를 보여주었다. 실험 1에서 나타난 결과양상은 Glaser와 Banaji의 결과에 비교해 볼 때 그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긍정-긍정은 일치성 효과와 유사한 결과이며, 부정-부정은 역접화 효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별 성격 특성의 정서적 평가가 일반 정서형용사나 인종 편견의 정서적 평가와 다른 현상을 보인 것은 역접화의 설명에 의해서 긍정-긍정이 부정-부정보다 대비적 효과



(그림 1) SOA변화에 따른 접화 - 복표조건 명명시간

가 적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반면 Greenwald 등(2000)의 설명에 따르면 성격 특성의 경우에는 부정보다는 긍정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성별 특성의 선호도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연합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보편적인 성격 특성과는 다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긍정 특성은 서로가 극단적인 속성으로 구성되기보다는 중간 정도의 연합적 관계로 구성되며, 부정 속성은 속성간의 연합적 관계가 극단적이거나 관련성이 적은 속성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차 조건(부정-긍정 조건)의 반응시간이 긍정-긍정과 부정-부정의 중간에 위치해야 한다. 실험 1에서는 긍정-긍정과 부정-긍정쌍간 반응시간 아니라 부정-부정과 긍정-부정간 반응시간의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점화 속성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반응시간에 영향을 주었기보다는 목표 속성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반응시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점화 단어의 특성정보가 점화자 역할을 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이는 Klauer 등(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들 연구에 따르면 성별 성격특성에 대한 자동평가에는 일반적인 인지 요소 외에 정서차원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서적 점화는 단순한 의미적 점화와는 달리 그 점화 효과가 매우 빠르게 소멸됨을 보여주었다. 일반 인지개념의 의미적 점화에 비해서 정서적 점화는 상대적으로 짧게 지속되기 때문에 짧은 SOA에서(Klauer 등의 연구에서는 100ms)조차도 그 효과를 관찰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실험 2처럼 점화단어와는 독립적으로 긍정 목표단어가 때가 부정 목표단어보다 반응시간이 일관되게 빠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정서적 정보도 의미적 처리를 하도록 의도적으로 처리부담(load)를 가해주면 점화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De Houwer 등(2001)의 연구에서는 정상적으로 제시한 목표 단어뿐만 아니라 목표단어를 손상시켜(degraded) 의식적 정보처리를 유도한 경우에도 점화-목표어간 일치성 효과를 보여주었다. SOA가 길어지면서(실험 2) 일치성 효과와 더불어 목표 단어의 긍정성 우위 효과도 소멸되거나 현상은 최소한 SOA 500ms가 인지적 전략이나 의식적 과정이 반영되는 최소한의 시점임을 보여주었고 실험 1의 결과는 정서정보에 대한 자동적 처리를 반영하는 확실한 증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특징은 점화-목표 조건에서 점화어가 긍정적 성격특성보다는 목표어가 긍정 특성일 경우가 부정 특성일 때보다 일관되게 명명반응시간이 빠른 점이다. 즉, 긍정특성이 점화단어로 목표단어에 대

한 촉진효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목표단어의 긍정 특성이 부정특성보다 반응시간을 빠르게 유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의미점화에서는 점화효과가 지속적이지만 정서와 관련된 점화효과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소멸되기 때문에 판단자들이 점화어보다는 목표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쏟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명명과제자체가 정서가가 내포된 사회적 정보의 자동처리기제를 밝히는 데는 민감도가 떨어진 방법론일 수 있다. 대안적 해석으로서는 인지 일반의 의미적 점화와 사회적 정보의 자동적 평가과정이 동일한 하다는 암묵적 가정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약 정서판단이 인지보다는 더 자동적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 과정을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의 정교화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언어적 자극을 사용하여 정서적 표상과 과정을 측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언어와 정서간 표상체계의 일치성 여부, 그리고 사회(정서)인지체계와 일반 대상의 인지체계간 표상체계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혜숙(1999). 집단번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33.
- 이재호, 오경기, 김미라 및 조근호(2001). 사회적 범주의 자동 암묵적 표상구조: 성별 고정관념의 비대칭적 점화효과. *인지과학*, 12, 1-2, 43-54.
- Banaji, M. R. & Greenwald, A. G. (1995). Implicit gender stereotyping in judgments of fa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81-198.
- Bargh, J. A., Chaiken, S., Raymond, P., & Hymes, C. (1996). The automatic evaluation effect: Unconditional automatic attitude activation with a pronunciation task.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2, 104-128.
- Blair, I. V. & Banaji, M. R. (1996).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in stereotype pri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142-1163.
- Bower, G. H. (1981). Mood and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36, 129-148.
- Cantor, N. & Mischel, W. (1979). Prototypes in person percep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New York:

- Academic Press.
- Cohen, C. E. (1981). Person categories and social perception: Testing some boundaries of the processing effects of the prior knowle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441-452.
- De Houwer, J., Hermans, D., & Spruyt, A. (2001). Affective priming of pronunciation responses: Effects of target degrad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85-91.
- Fazio, R. H., Sanbonmatsu, D. M., Powell, M. C., & Kardes, F. R. (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29-238.
- Glaser, J., & Banaji, M. R. (1999). When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 : Reverse Priming in automatic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669-687.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Greenwald, A. G., Draine, S. C. & Abrams, R. L. (1996). Three cognitive markers of unconscious semantic activation. *Science*, 273, 1699-1702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Isen, I. M. (1987). Positive affect, cognitive processes and social behavior.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0, 203-253.
- Klauer, K. C., Rossmagel, C., & Musch, J. (1997). List-context effects in evaluative prim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3, 246-255.
- Kunda, Z. (2000). *Social cognition: Making sense of people*. Cambridge, Mass.: MIT Press.
- Macrae, C. N., Stangor, C., & Milne, A. B. (1994). Activating social stereotypes: A functional analysi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370-389.
- McGarty, C. (1999). *Categorization in social psych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 Neely, J. H. (1977). Semantic priming and retrieval from lexical memory: Roles of inhibitionless spreading activation and limited capacity atten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6, 225-254.
- Neely, J. H., Schmidt, S. R., & Roediger, H. L. (1983). Inhibition from related primes in recognition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9, 196-211.
- Rudman, L. A., Greenwald, A. G. & McGhee, D. E. (2001). Implicit self-concept and evaluative implicit gender stereotypes: self and ingroup share desirable trai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164-1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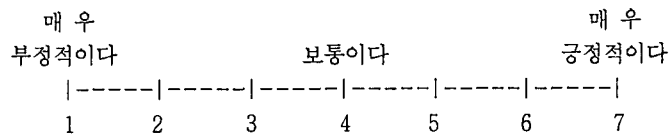
부록1. 남성과 여성의 성(gender) 특성(property) 단어

남성 단어		여성 단어	
상위 30	하위 30	상위 30	하위 30
사납다	과격하다	다이어트한다	예민하다
힘이세다	건장하다	눈물이 있다	얇전하다
활동적이다	냉철하다	빠지다	까다롭다
강인하다	능동적이다	내숭떨다	성실하다
건강하다	다혈질이다	머리가 길다	꾸미다
바지를입는다	날카롭다	사랑스럽다	신경질적이다
터프하다	냉정하다	꼼꼼하다	순종적이다
책임감있다	당당하다	섬세하다	복잡하다
고집이세다	도전적이다	가슴이있다	자상하다
담배를핀다	독립심이있다	부드럽다	잔인하다
운동을한다	독선적이다	세심하다	부드럽다
군대간다	나약하다	색시하다	발랄하다
권력적이다	둔하다	악세사리를 한다	조용하다
권위적이다	보수적이다	구두를신는다	내성적이다
어깨가 넓다	잘난척한다	감성적이다	우아하다
근육질이다	딱딱하다	수다스럽다	차분하다
썩썩하다	똑똑하다	가날프다	고집스럽다
술을마신다	매너있다	화장하다	소극적이다
수염이있다	이중적이다	깔끔하다	침착하다
색을밝힌다	허풍먼다	여우같다	계산적이다
돈을번다	성취적이다	허영심이있다	다소곳하다
듬직하다	튼튼하다	아름답다	하얇다
단순하다	속이넓다	따뜻하다	소중하다
능력있다	무신경하다	애교스럽다	다정다감하다
바람핀다	여유롭다	연약하다	현실적이다
명예욕이있다	주도적이다	귀엽다	분위기가있다
무식하다	적극적이다	치마를입는다	이성적이다
늑대같다	배려하다	질투한다	힘들다
무뚝뚝하다	외형적이다	예쁘다	감각적이다
멋있다	이기적이다	요리한다	갈대같다

부록2. 성 특성 단어의 선호도(preference) 평균.()안은 표준편차.

* 다음은 남성 또는 여성과 관련된 특성 단어입니다. 각 단어가 [매우 부정적]특성이면 1번에 [매우 긍정적]특성이면 7번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집이 세다



긍정 특성				부정 특성			
특성	평균	특성	평균	특성	평균	특성	평균
배려하다	6.42(.85)	감각적이다	5.45(1.25)	냉철하다	4.49(1.29)	수다스럽다	3.11(1.16)
책임감있다	6.35(.92)	운동을한다	5.43(1.17)	구두를신는다	4.40(.88)	보수적이다	3.05(1.12)
능력있다	6.35(.91)	성취적이다	5.42(1.02)	어깨가 넓다	4.40(1.49)	고집세다	2.99(1.40)
사랑스럽다	6.31(1.02)	깔끔하다	5.41(1.00)	술을마신다	4.29(1.17)	색을밝힌다	2.91(1.16)
건강하다	6.27(1.19)	강인하다	5.40(1.09)	바지를입는다	4.27(.75)	다혈질이다	2.90(1.12)
속이넓다	6.20(.83)	애교스럽다	5.39(1.10)	조용하다	4.22(.98)	까다롭다	2.89(.98)
능동적이다	6.19(.91)	세심하다	5.39(1.04)	얌전하다	4.15(1.07)	둔하다	2.89(1.14)
소중하다	6.14(.87)	튼튼하다	5.37(.97)	다이어트한다	4.07(1.25)	갈대갈다	2.88(1.25)
아름답다	6.12(.96)	돈을번다	5.35(.99)	외형적이다	3.94(1.33)	계산적이다	2.85(1.49)
성실하다	6.05(.99)	똑똑하다	5.35(1.00)	까날프다	3.92(1.13)	담배를핀다	2.82(1.42)
자상하다	6.01(1.07)	섬세하다	5.25(.98)	터프하다	3.87(1.22)	권력적이다	2.74(.95)
여유롭다	6.00(.92)	차분하다	5.24(.93)	날카롭다	3.80(1.39)	소극적이다	2.67(1.05)
당당하다	5.95(1.01)	도전적이다	5.22(.97)	근육질이다	3.80(1.26)	과격하다	2.62(1.20)
따뜻하다	5.95(1.11)	주도적이다	5.17(1.20)	명예욕이있다	3.75(1.26)	늑대갈다	2.59(1.29)
발달하다	5.94(.90)	하얗다	5.11(1.24)	예민하다	3.67(1.02)	내숭떨다	2.57(1.04)
적극적이다	5.91(1.04)	건강하다	5.10(1.12)	군대간다	3.64(1.74)	무신경하다	2.44(1.21)
멋있다	5.88(1.09)	섹시하다	5.06(1.21)	여우같다	3.63(1.45)	권위적이다	2.43(.88)
활동적이다	5.88(.99)	요리한다	5.05(.98)	고집스럽다	3.51(1.14)	나약하다	2.41(1.09)
다정다감하다	5.81(.97)	꼼꼼하다	5.02(1.00)	단순하다	3.50(1.18)	사납다	2.31(1.19)
예쁘다	5.77(1.01)	이성적이다	4.99(1.07)	냉정하다	3.42(1.18)	허영심이있다	2.27(1.08)
매너있다	5.75(1.07)	눈물흘린다	4.96(1.02)	딱딱하다	3.37(.92)	무식하다	2.25(.96)
독립심이있다	5.67(1.05)	머리가길다	4.94(1.14)	매정하다	3.37(1.16)	허풍떨다	2.13(1.23)
침착하다	5.66(.87)	감성적이다	4.93(1.13)	내성적이다	3.36(1.00)	잘난척한다	2.05(1.12)
분위기있다	5.66(1.00)	가슴이있다	4.75(1.02)	수염이있다	3.35(1.12)	이중적이다	2.05(1.21)
귀엽다	5.65(1.00)	다소곳하다	4.69(1.21)	무뚝뚝하다	3.31(1.12)	바람핀다	2.02(1.06)
부드럽다	5.63(.96)	치마를 입는다	4.67(1.17)	연약하다	3.28(1.16)	지적이다	2.00(1.15)
우아하다	5.59(1.07)	꾸민다	4.66(1.14)	복잡하다	3.27(1.04)	이기적이다	1.92(1.11)
보드럽다	5.52(1.11)	힘이세다	4.60(1.04)	질투한다	3.24(.99)	잔인하다	1.80(1.07)
씩씩하다	5.49(1.03)	악세사리한다	4.58(1.07)	순종적이다	3.24(1.26)	독선적이다	
듬직하다	5.45(.98)	화장한다	4.51(1.04)	빠지다	3.13(1.00)	신경질적이다	

* 진한 글씨체 단어 : 긍정특성 상위 24개, 부정특성 하위 24개를 최종 실험재료로 사용하였음